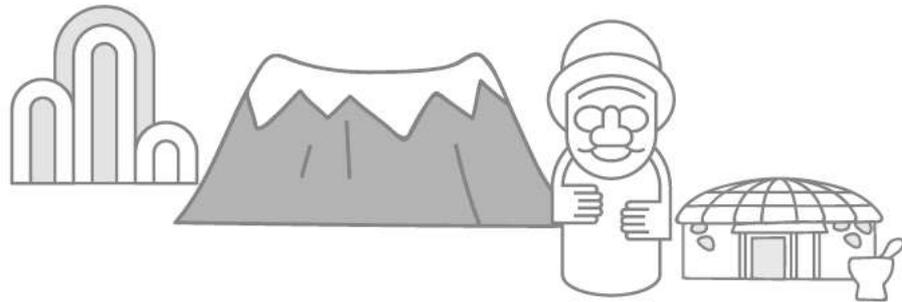


# 2021년 도민평생학교 제주 신화 학교 1기

- 일반신 본풀이 1 -







# 목 차



## 1강

신을 빌미로 한 인간 이야기, 본풀이 ..... 3

인간 세상이 이렇게 생긴 내력, 천지왕본풀이 ..... 9

## 2강

두 여신이 움푹온 생명의 꽃과 뿌리, <할망본풀이> ..... 17

## 3강

<삼승할망에게 굴복한 마마신(媽媽神), 대별상마누라의 내력 마누리본풀이 > ..... 27

## 4강

초공본풀이 ..... 37

- 제주도 심방의 '헝두' 무업조상(巫業祖上)과 굿의 유래

## 5강

생사를 가르는 서천꽃밭 이야기, 이공본풀이 ..... 47

## 6강

삼공본풀이 ..... 55

- 내 복에 산다고 자각하고 스스로 좋은 '전상' 을 일구는 삶



# 1강

- 신을 빌미로 한 인간 이야기, 본풀이
- 인간 세상이 이렇게 생긴 내력, 천지왕본풀이



# 신을 빌미로 한 인간 이야기, 본풀이

강정식(제주학연구소 소장)

## 1. 본풀이의 개념과 위상

본풀이는 신의 ‘근본 내력 풀이’이다. ‘본(本)’과 ‘풀이’를 합친 말이다. 본풀이는 주인공의 출생부터 신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을 풀이한다. 그런데 주인공의 삶은 대체로 인간의 삶과 다르지 않다. 본풀이는 신을 빌미로 삼아 인간의 이야기를 풀어내곤 한다.

본풀이는 신을 기쁘게 하는 이야기이다. 인간이 기원하는 바를 들어달라고 말하기 위해서 먼저 신을 기쁘게 한다. 본풀이는 심방이 굿판에서 신을 대상으로 하여 풀어내는 이야기이다. 굿판에서 신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풀어내지 않는 이야기이다. 본풀이는 신의 내력을 풀이함으로써 신을 기쁘게 한다. 신은 자신의 내력이 펼쳐지는 것을 즐긴다. 흔히 “귀신은 본을 풀면 신나락 만나락 한다.”고 한다.

본풀이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이다. 본풀이는 이야기인 만큼 그 자체로 재미가 있다. 전통사회에서 가장 인기있는 즐길거리였다. 요즘의 연속극에 상응하는 위치에 있었다. 사람들은 본풀이를 듣기 위하여 굿판을 찾기도 하였다. 주요 본풀이는 이야기를 순조롭게 전달하기 위하여 조용히 구연한다. 심방은 스스로 장구를 치면서 이야기를 풀어간다. 더러 요령을 흔들면서 풀기도 하고, 소미들의 북과 장구 반주를 곁들이면서 풀기도 한다.

본풀이는 신을 기쁘게 한다는 빌미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인 셈이다. 본풀이가 이야기인 만큼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판에서도 회자되곤 한다. 곧 옛날 이야기 레퍼토리에 포함되기도 한다는 말이다. 그만큼 본풀이가 재미있는 이야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판에서는 본풀이의 내용 주요 대목을 간추린 것일 뿐이다. 일반 사람이야 본풀이를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본풀이 전체를 풀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심방은 다르다.

본풀이는 의례의 일부이며 전승의 주체는 심방이다. 특정한 순서에서는 반드시 본풀이를 구연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본풀이는 오랫동안 전승될 수 있었다. 심방은 사제자이면서 이야기꾼이기도 하다. 사제자이니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굿을 진행해야 한다. 그 절차에는 본풀이가 포함된다. 심방은 굿판에서 거듭 본풀이를 구연하면서 전문적인 이야기꾼으로 성장한다. 본풀이 가운데는 2시간 이상 풀어야 하는 장편도 있다. 일반인의 이야기판에서 이처럼 긴 이야기가 유통되는 일은 없다.

본풀이는 신을 빌미로 삼아 인간의 이야기를 담는다. 본풀이는 의례의 일부이고 사제자인 심방에 의하여 전승되는 이야기라고 하였다. 그러나 전적으로 신의 이야기만 다루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을 빌미로 삼아 인간의 이야기를 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사람들이 본풀이에 관심을 가지고 즐기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본풀이는 무속신화 혹은 서사무가라는 용어를 이미 대체하였다. 이는 제주도 본풀이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본풀이는 우리 문학사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본풀이는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 이른 시기부터 형성되고 유통되었다. 본풀이는 전문적인 작가들이 활동하기 이전에 만들어지고 유통되던 이야기이다. 후대의 문학사는 앞선 시기 본풀이의 영향을 두루 입었다.

본풀이는 ‘살아있는 신화’이다. 지금도 굿 현장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살아있는 신화’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본토의 경우만 해도 우리 제주도와는 사정이 다르다. 신화를 거론할 때 제주도 본풀이를 반드시 언급해야 마땅하다.

## 2. 본풀이의 유형

제주도 본풀이에는 여러 유형,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를 본토의 경우와 견줄 때 제주도만의 유별남을 확인할 수 있다.

본풀이에는 조상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일반신본풀이, 특수본풀이 네 유형이

있다. 특수본풀이를 제외하고는 주인공의 위치에 있는 신의 성격과 관련 신앙의 범위에 따라 정리해본 결과이다.

조상신본풀이는 가문의 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이면서 가문을 중심으로 전승된다. 당신본풀이는 마을 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이면서 마을 단위로 전승된다. 일반신본풀이는 가문과 마을을 넘어서는 일반의 신을 주인공으로 하면서 제주도 어디에서나 전승된다. 특수본풀이는 전승 단절된 본풀이 몇 편에 대한 편의상의 명칭이다.

조상신은 특정 가문의 재복을 지켜주는 신이다. 비혈연 조상도 있고 혈연 조상도 있다. 조상신은 제사나 명절에도 제향되곤 한다. 조상신앙도 전승의 범위를 넓혀가기도 한다. 본래 남의 조상을 끌어다 자신의 조상으로 모시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다. 당신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주신은 본향신, 보조신은 일뿔중저·으드렛도, 개당하르방·개당할망, 산신 등이다. 이들은 본향신과 산육·치병신, 생업신의 조합으로 하나의 신앙권을 이룬다. 이웃 마을과 교류를 하다 보니 당신앙도 여러 모로 공유하는 경향이 많다. 이에 따라 당신본풀이도 유사성을 지니기 마련이다.

일반신은 주요 인간사를 담당하는 신이다. 생사, 생업, 질병 등 주요 인간사에는 신들의 손길이 미치지 마련이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본풀이 목록에도 들고 남이 있었다. 심방들은 필요에 따라 대응해 왔다. 일반신본풀이는 여러 유형 가운데 흥미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는 사례이다.

본풀이는 유형에 따라 구연기회가 달리 마련된다. 조상신은 신앙의 주체가 일가(一家) 혹은 가문(家門)이다. 조상신본풀이는 그 조상을 모시는 기주의 곳일 경우 반드시 구연된다. 그 집안을 벗어나서는 구연될 까닭이 없다. 당신은 신앙의 주체가 마을공동체만일 수도 있고 생업공동체일 수도 있다. 당신본풀이는 당곳을 할 때 반드시 구연된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갓집 곳에서도 반드시 구연된다. 다른 마을 사람의 곳에서는 구연될 까닭이 없다. 일반신은 신앙의 주체가 제주도 사람 모두이다. 일반신본풀이는 사갓집 곳에서 두루 구연된다. 조상신이 있건 없건, 사는 곳이 어느 마을이건 상관 없이 구연된다. 경우에 따라 생업공동체의 곳에서 구연되는 것들도 있다.

유형	조상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일반신본풀이
범위	일가	마을, 생업공동체	일반
의례	사갓집굿	당굿, 사갓집굿	생업공동체굿, 사갓집굿

조상신은 반드시 제향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조상신본풀이는 그 존재가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조상신이 특정한 집안에서만 모셔지기에 그 본풀이를 아는 이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조상신이 특정한 집안에서만 제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이야기 자체에서도 제향의 주체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중시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제향의 대상과 제향의 주체가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본풀이 속에 제향의 대상인 신과 제향의 주체인 사람이 함께 등장하여 서로 만나고 일정한 행위를 함께 한다.

당신도 반드시 제향을 해줄 마을이 필요하다. 특정한 마을을 찾아가서 그 마을의 대표들로부터 제향을 약속받는 것으로 당신의 좌정처 탐색이 완료된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흥협을 주어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제향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일부 자료에서는 마을 대표가 아니라 특정한 성씨의 조상인 개인 혹은 특정한 심방을 안내자로 삼고 그들로부터 제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당신본풀이가 조상신본풀이에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단골이 개인으로 제시된 것은 조상신본풀이의 면모가 남은 것이고, 단골이 마을 대표로 제시된 것은 완전히 당신본풀이의 면모를 갖춘 것이라고 해도 좋겠다.

일반신은 굳이 누구로부터 제향을 받게 되었는지를 말할 필요가 없다. 어느 지역의 어떤 사람의 집에서 굿을 하더라도 두루 제향이 되는 신들이기 때문이다. 일반신본풀이에는 오로지 신앙의 대상인 신만 등장한다. 신앙의 주체인 인간이 의미있는 존재로 등장하는 사례가 드물다.

유형	조상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일반신본풀이
----	--------	-------	--------

등장인물	조상신, 단골 개인	당신, 단골 대표	신
------	------------	-----------	---

본풀이의 쓰임새가 잘 드러나는 의례는 사갓집의 큰굿이다. 큰굿에서는 절차에 따라 조상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일반신본풀이를 구연한다. 해당 집안의 조상신본풀이와 해당 마을의 당신본풀이를 구연할 뿐 아니라 일반신본풀이를 두루 구연한다. 특히 조용한 밤 시간에 인기 있는 본풀이를 구연하곤 한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본풀이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곤 하였다. 요즘에는 그 인기를 TV에 내주었다. 본풀이의 전승에 가장 큰 장애는 TV이다.

일만 팔천 신에 대한 본풀이가 두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중요한 일과 관련한 신들의 본풀이만 존재한다. 참고로 ‘일만 팔천’은 많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수일 뿐이다. 실제 신의 수는 이보다 훨씬 적거나 많다. 이는 축구 선수 가운데 포지션상 골키퍼라고 불리는 선수는 하나지만, 지구상에는 수많은 골키퍼가 존재하는 것과 같다.

### 3. 일반신본풀이의 종류

조상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게 될 테니 이번에는 일반신본풀이에 집중해 보기로 하자.

일반신본풀이로는 10여 가지가 있다. 널리 알려진 것은 천지왕본풀이, 할망본풀이(삼승할망본풀이, 구삼승할망본풀이, 마누라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차사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칠성본풀이, 사만이본풀이(멩감본풀이), 지장본풀이, 영감본풀이이다. 이들을 아울러 흔히 ‘열두본풀이’라고 한다. 하지만 반드시 열두 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열둘’은 그저 ‘차고 넘침’을 의미하는 수일 뿐이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고, 반드시 열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실제로 삼승할망

본풀이, 구삼승할망본풀이, 마누라본풀이는 하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다.

일반신본풀이는 그 대부분이 본토와 함께 전승하는 이야기를 근간으로 한다. 이로 보아 과거에는 본토에도 다양한 본풀이가 전승되고 있었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지금의 사정은 크게 다르다. 본토에는 일반신본풀이에 해당하는 것이 몇 편에 불과하다. 당금애기, 바리데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토에서 전승하던 것이나 전승 중인 것은 대개 제주도에서도 전승되지만 바리데기만은 제주도에서 전승되지 않는다. 이 점은 제주도 본풀이 관련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이다. 한편 본토에는 조상신본풀이나 당신본풀이에 해당하는 전승이 매우 드물다. 전반적인 전승 양상이 제주도와 다른 셈이다.

핵심적인 본풀이로는 초공·이공·삼공의 본풀이를 든다. 초공은 신불휘, 이공은 꽃불휘, 삼공은 노불휘라고 한다. 이때 ‘불휘’는 뿌리이니, 근본 가운데 근본에 해당하는 셈이다. 제주도 무속 사회에서는 이 셋을 통하여 의례의 규범을 마련하고 곳을 확장해왔다.

# 인간 세상이 이렇게 생긴 내력, 천지왕본풀이

강정식(제주학연구소 소장)

## 1.

본풀이는 신의 내력을 이야기하면서도 인간의 이야기를 담는다. 본풀이의 모든 설정은 인간 세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세계관과 가치관, 인간관이 본풀이에 반영되곤 한다. 이러한 사정은 천지왕본풀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천지왕본풀이는 신을 빌미로 하여 인간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천지왕본풀이는 인간 세상이 이루어진 내력을 말한다. 아울러 인간세상의 무질서에 대한 원죄(原罪)를 이야기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야기는 세계 여러 곳에서 전승된다. 본토에서 곳곳에서도 같은 계통의 이야기가 전승된다. 이들 이야기는 신의 이야기이기만 하다면 다를 수 없지만,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다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천지왕본풀이는 인간 세상이 이루어지는 내력을 말하는 본풀이인 만큼 곳판에서 가장 먼저 구연된다. 인간 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초감제의 베포도업침에서 풀이된다. 바로 이 베포도업침에서 해와 달이 생긴 내력을 언급할 때 천지왕본풀이가 구연된다. 흔히 창세신화(創世神話)라고 하지만, 본풀이자체만으로는 창세에 관한 내용이 뚜렷하지 않다.

## 2.

이야기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존재는 천지왕과 총맹부인, 천지왕과 수명장자, 대별왕·소별왕이다. 핵심적인 구실을 하는 존재는 천지왕·총맹부인, 대별왕·소별왕 2대이다.

- (1) 수명장자의 악행(불효, 가난한 이들 이용한 致富) \*일월로 인한 인간 세상의 문제.
- (2) 수명장자 징치를 위한 천지왕의 하강 \*일월 문제 해결을 위한 하강.
- (3) 천지왕과 총맹부인의 결연 \*일월 문제 해결 시도.
- (4) 수명장자 징치 \*부수적인 문제 해결.
- (5) 천지왕과 총맹부인의 이별
- (6) 대별왕 · 소별왕의 탄생
- (7) 대별왕 · 소별왕의 성장과 고난
- (8) 대별왕 · 소별왕의 부친 탐색
- (9) 대별왕 · 소별왕의 일월 조정 \*일월 문제 해결.
- (10) 대별왕 · 소별왕의 이승 차지 경쟁
- (11) 소별왕의 부정으로 인한 인간세상의 무질서 \*그래도 남은 문제.

모든 이야기를 이끄는 동력은 ‘문제 - 해결’, ‘고난 - 극복’, ‘결핍 - 충족’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천지왕본풀이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고, 천지왕이나 대별왕 · 소별왕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

하늘 옥황의 천지왕이 지상으로 내려간다. 천지왕이 지상으로 내려가는 까닭은 전승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수명장자를 징벌하기 위함이다. 다른 하나는 해 둘, 달 둘로 인한 인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맥락을 고려할 때는 뒤의 이유가 적절한 설정이다. 앞서 베포도업침을 통해 우주와 인간 세상이 만들어진 내력이 제시되었다. 이때 그 과정의 문제로 해와 달이 들쭉 떠서 인간이 살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따라 일월(日月)을 조정하는 일이 급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담은 것이 바로 천지왕본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명장자 징치는 부수적인 요소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sup>1)</sup>

지상으로 내려간 천지왕은 총맹부인과 결연한다. 결연 과정에 수명장자의 악행을 알게 된다. 가난한 총맹부인이 천지왕을 대접하기 위하여 수명장자에게 쌀을 꾸어다가 밥을 지었는데, 밥에서 모래가 씹히는 바람에 수명장자가

1) 앞서 우주와 인간 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자연현상으로만 제시된 것이다. 여기에 신의 개입은 없었다. 일월조정부터 신이 개입하는 셈이다. 천지왕본풀이는 이미 인간 세상이 이루어진 뒤에 남은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빌려주면서 모래를 섞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화가 난 천지왕이 수명장자를 징벌한다. 수명장자의 악행을 징벌하기 위해서 천지왕이 하강하는 것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수명장자의 악행도 달리 설정된다. 수명장자는 부친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불효를 저지른다. 생전에 부친에게 매 끼니를 대접한 대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수명장자의 악행이 가난한 자에 대한 횡포와 부모에 대한 불효로 달리 설정된 셈이다. 뒤의 경우 수명장자의 악행을 내세우다 보니 전체적인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sup>1)</sup>

천지왕은 총맹부인에게 잉태를 시키고 하늘로 올라간다. 떠나기에 앞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꼭씨와 증표를 남긴다. 이러한 천지왕의 모습은 우리 신화에서 흔히 보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고구려 건국신화의 해모수를 들 수 있다. 주몽이 홀어머니 밑에서 온갖 고난을 겪는 것처럼 이야기 속의 영웅은 어려서부터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존재로 설정되기 마련이다. 한편 천지왕이 직접적으로 일월조정에 나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해둘 필요가 있다.

총맹부인은 대별왕·소별왕 형제를 홀로 낳아 기른다. 대별왕·소별왕이 자라 아버지를 찾자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해준다. 자라는 과정에서 이들의 영특함이 두드러진다거나 활을 잘 쏜다거나 하는 설정이 덧붙는 것은 자연스럽다. 유화 부인과 유리의 내력을 떠올리게 되는 대목이다.

대별왕·소별왕은 아버지를 찾아 하늘로 간다. 천지왕이 총맹부인에게 남긴 꼭씨를 심고 줄기가 하늘로 번져 그 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대별왕·소별왕은 일월조정을 한다. 천지왕과 두 아들은 부자 상봉을 하고 친자 확인을 거친다. 천지왕은 비로소 지상으로 내려갔던 목적을 본격적으로 이루려고 한다. 아들들에게 일월조정의 임무를 맡긴다. 대별왕·소별왕은 합심하여 해 하나 달 하나를 활로 쏘아 떨어뜨린다. 이로써 인간 세상은 비로소 사람이 살 만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

대별왕·소별왕은 이승을 차지하기 위하여 다툰다. 천지왕은 대별왕에게 이승법, 소별왕에게 저승법을 차지하라고 한다. 그러나 소별왕이 이승법에 욕심을 낸다. 그래서 내기를 제안한다. 수수께끼 내기에 이어 꽃가꾸기

---

1) 그런데 수명장자의 악행을 징치하기 위하여 지상에 이르렀다는 설정은 천지왕본풀이에서 비로소 마련된 것은 아니다. 같은 계통에 속하는 전승인 경기도 「시루말」에도 지상의 죄인을 징벌하기 위하여 하강한다고 하였다. 가구 적간(家口摘奸).

내기를 하는 도중 내기에 지게 되자 잠자기 내기를 제안하고 몰래 꽃을 바꾸어 놓는다. 그 결과 대별왕은 저승법, 소별왕은 이승법을 맡게 된다.

소별왕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승은 영원히 무질서한 세상으로 남게 된다. 대별왕은 인간 세상의 여러 가지 어지러움을 해결해준다. 그러나 인간 세상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지 않고 남긴다. 이 때문에 저승과 달리 인간 세상은 영원히 무질서한 상태가 지속된다. 소별왕이 부정하게 이승법을 차지한 탓이다.

### 3.

천지왕본풀이는 천상적 존재이면서 남성인 천지왕, 지상적 존재이면서 여성인 총명부인의 결합, 그 사이에서 태어난 대별왕·소별왕이 고난을 극복하고 신으로 좌정하는 구도의 이야기이다. 우리 신화에서 흔히 보는 구도이기도 하다. 여기에 해와 달을 조정하는 사정을 담았다. 해와 달이 둘이어서 문제가 되고 이를 해결해야만 하였으며, 문제를 해결하고도 인간 세상이 무질서한 까닭을 말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 천지왕본풀이에서 문제로 삼은 것은 일월조정과 인간 세상 무질서의 근원이라는 말이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주목해 보기 바란다.

#### 1) 원죄(原罪)

원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아담·이브와 대별왕·소별왕은 전혀 다른 설정이다. 천지왕본풀이의 경우 신의 부도덕함으로 인하여 인간세상이 무질서하게 되었다고 한다.

#### 2) 질서, 무질서

해와 달은 질서의 근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와 달의 움직임이 곧 인간 세상의 조건을 결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별왕·소별왕은 질서의 신이라고 할 수 있다. 대별왕·소별왕이 저승법과 이승법을 차지한 신이라고 하는 이유이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선후도착(先後倒錯)을 그대로 인정하여 질서화한다. 선후도착이 그르다고 해서 바로 잡지는 않는다. 질서를 말하면서 무질서를 고착화한 셈이다. 달리 보면 다시 질서의 필요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3) 빈부 문제

빈부차이를 지닌 남녀의 결연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공감, 부자의 횡포에 대한 반감이 공존하고 있다. 제주도 본풀이에서 빈부의 문제를 다루는 사례는 비교적 흔하다.

### 4) 수직적 세계관, 수평적 세계관

꼭줄 타고 하늘로 오르는 것도 살펴야 할 대목이다. 꼭줄에서 줄보다 꼭에 의미가 있다. 꼭은 박이다. 박은 알 혹은 상자와 같은 의미이다. 건국 신화에서 시조가 되는 존재는 흔히 알 혹은 상자를 통해 출현한다. 천지왕 본풀이에서는 반대로 하늘에 오르는 대목에서 꼭이 쓰였다. 천상에 오른다고 하기 위해 줄이라고 했다. 제주 신화의 수평적 세계관이 본토의 수직적 세계관과 만나 이러한 타협이 이루어졌겠다.

### 5) 전승의 두 가지 맥락

“천지왕이 새 세상(지상)에 내려가 기존 세력인 수명장차를 징치하고 총명부인과 혼인하여 살다가 별거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버지를 찾아 천상에 올라갔다가 책무 부여 받고 귀향하여 좌정한다.”

“해와 달이 들썩이어서 문제가 된다. 천지왕 해와 달 조정할 영웅을 구한다(태몽). 지상에 내려 총명부인과 결연한다. [수명장자 징치한다. 가난한 총명부인의 정성(밥) - 정성에 문제(머흠) - 아들 낳기의 문제 - 해결 시도(수명장자 징치) - 동침, 잉태.] 증표(본메) 두고 하늘로 올라간다. 대별왕, 소별왕 태어난다. 자라 하늘로 천지왕 찾아가 만난다. 대별왕·소별왕 해와 달 조정한다. 이승법과 저승법을 나누어 맡는다.”



# 2강

- 두 여신이 움푹운 생명의 꽃과 뿌리, <할망본풀이>



## 두 여신이 움푹은 생명의 꽃과 뿌리, <할망본풀이>

이현정(제주대학교 강사)

<할망본풀이>는 일반신본풀이 중에서도 개성이 유다르다. 보통 일반신본풀이는 육지부에서 전승되는 서사물—본풀이(무속신화) 또는 민담, 서사민요 등—과 틀거리를 공유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할망본풀이>의 이본(異本)이나 동계 서사물이 한반도 내 타지역에서 전승된다는 학술적 보고는 지금까지 없다. 이는 <할망본풀이>가 여타 일반신본풀이에 비해, 토착 신앙·신화체계를 토대로 삼았으며, 나름의 독자성·변별성을 간직하고 있을 여지가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sup>1)</sup>

온전한 한편의 <할망본풀이>는 명진국따님아기와 동해요왕말젓딸아기의 경쟁·좌정담을 담아낸다.<sup>2)</sup> 본풀이는 두 여신이 생불신 직능을 두고 경합을 벌여 승패를 가르기까지 사건들을 그린다. 그러니 경합의 결과, 즉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가 꽤 중요한 사안처럼 보인다. 하지만 눈여겨 보아야 할 정황은 따로 있다. 두 여신의 출자 내력에서 추정할 수 있는 ‘선후(先後)’의 의미와 이들이 이루는 공존의 상징성이다.

미리 결과를 언급하자면 해당 본풀이에서 패한 존재는 동해요왕말젓딸아기이고 승리한 존재는 명진국따님아기다. 두 여신 중 먼저 생불할망으로 들어섰던 이는 동해요왕말젓딸아기였다. 하지만 동해요왕말젓딸아기는 문제가 많은 생불할망이었다. 포태는 줄 수 있었으나 유산과 같은 사건사고를 빈번하게 일으켰다. 더욱이 큰일은 동해요왕말젓딸아기가 아이를 해산시키는

1) 육지부 무속에서 전승되는 산육신, ‘삼신(産神)’의 내력은 대개 <제석본풀이>와 관련이 깊다. <제석본풀이>는 ‘제석굿’, ‘세존굿’, ‘생굿’ 등의 무의(巫儀)에서 연창되는 생산신 또는 수복신의 본풀이로서, 여주인공의 명칭을 따서 <당금애기>, <서장아기>, <제석님네 따님아기>라는 이칭으로도 불린다. 이 본풀이는 스님과의 접촉으로 아이를 잉태하여, 아들 삼형제를 낳은 여주인공이 부신(夫神)을 찾아가 아들들과 함께 신직을 부여받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아들 삼형제는 제석신(帝釋神)으로 여주인공이자 어머니인 당금애기는 삼신으로 좌정하였다고 전한다. (서대석, 『무가 문학의 세계』, 집문당, 2011, 185쪽.) <제석본풀이>의 전승 범위는 우리나라 전역인데, 유독 제주도만은 삼신을 위하는 별도의 본풀이인 <할망본풀이>가 전하며 <제석본풀이>는 무조신(巫祖神)의 내력을 푸는 <초공본풀이>와 서사를 공유한다.

2) 이 글에서 <명진국할마님본풀이>, <동이용궁할마님본풀이>는 <할망본풀이>의 축소·분리판, <마누라본풀이>는 <할망본풀이>의 별도 확장판으로 간주한다.

방법을 몰랐다는 점이다. 덕분에 인세(人世)가 엉망이 되자, 이 문제를 수습하려 뒤늦게 오게 된 이가 명진국따님아기였다. 명진국따님아기는 동해요왕말젓딸아기가 생불할망으로서 해내지 못했던 일들을 수행하고 질서를 바로 잡는다. 이 같은 두 여신의 자질은 꽃 피우고 가꾸기 경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생불할망의 자리는 명진국따님아기에게 돌아가고 동해요왕말젓딸아기는 저승할망(구할망)으로 들어선다. 이때부터 15세 이전 인간들에 한하여 명진국따님아기는 ‘생(生)’을, 동해요왕말젓딸아기는 ‘병(病)과 사(死)’를 관장하게 된다.

경합의 결과는 아주 앞선 대목부터 예측이 가능하다. 동해요왕말젓딸아기는 어렸을 적부터 싹수가 노랬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 무쇠석함에 갇혀 버려졌던 여신이 바로 동해요왕말젓딸아기이다.<sup>1)</sup> 그럼에도 이 여신을 단순히 ‘악독한 루저’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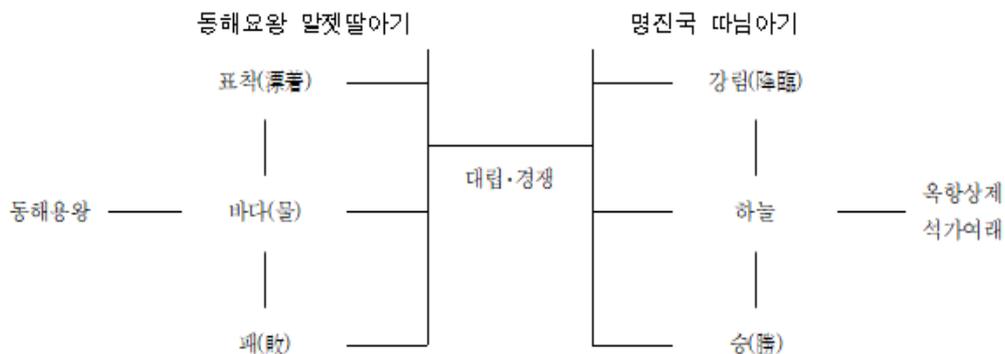
동해요왕말젓딸아기의 내력에는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화소와 토착적 산육신앙(당신앙)이 응축되어 있다. 제주도 무속신앙 체계에서 일반신신앙이 보편성을 띠는다면, 상대적으로 당신앙은 토착적이고 독자적인 성격을 띤다. 당신앙은 크게 본향당신앙, 생업수호당신앙, 산육신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산육신앙을 대표하는 것이 일렛당 신앙이다. 일렛당은 일렛당신이 좌정한 당이다. ‘일렛’은 당의 제일이 매 7일(초일렛[7], 열일렛[17], 스무일렛[27])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일렛당신은 여신이며 아이가 15세가 될 때까지 보살피는 산육신이자 피부병, 안질(眼疾), 복통, 경증, 경세 등에도 효험을 보이는 치병신으로 간주된다.

일렛당 신앙은 지역(신앙권)에 따라 여러 계열로 나뉘지만, 도 전역에 ‘토산 일렛당’ 계열이 가장 넓게 퍼져 있다.<sup>2)</sup> 이 계열의 일렛당신은

- 
- 1) 동해요왕말젓딸아기가 저지는 대표적인 악행은 ‘불효’이다. 한 살 적에는 어머님 젓가슴을 두드리고 두 살 적에는 아버지의 수업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 같은 행위는 제주도 본풀이에서 ‘영웅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하지만 이밖에 동해요왕말젓딸아기가 벌이는 특별한 악행들이 주목된다. 곡식 종자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농사를 망치고 꽃을 꺾는 ‘생산 방해’ 행위는 물론이고 주변의 불목을 조장한다. 동해요왕말젓딸아기의 영웅성을 점차 부정적 자질이나 신격적 특성을 대변하는 요소들로 변용·구체화 하여 간 단서들이다.
  - 2) 토산 일렛당 신앙과 토산 으드렛당 신앙은 다르다. 소위 토산 당신앙이라 하면, ‘정의 한집’, ‘정의 본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뱀신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는 토산 으드렛당 신앙이다. 토산 일렛당은 ‘토산 옷당’이라 하고, 토산 으드렛당은 ‘토산 알당’이라 하여 구분한다. ‘토산 옷당’은 <아기놀림>이라는 의례로, ‘토산 알당’은 내력과 관련하여 <방울친(혹은 방울푼)>이라는 의례가 아직도 고향에서 전승된다. 단 공동체 의례로서의 토산당굿은 여러 해 전에 중단되었고, 토산당신을 신앙하는 사자 집굿이나 굿을 의뢰한 본주(本主)가 토산과 얽힌 내력을 지녔을 경우 연행된다. 이 가운데 토산 일렛당 신앙과 관계된 <아기놀림>은 아이를 어르고 달래는 육아 습속이 매우 사실적으로 극화(劇化)한 의례이다.

‘용왕녀(동해요왕말젓딸아기)’ 로서,<sup>1)</sup> 송당 계보의 남성신과 결연하였다가 식성 갈등으로 살림을 분산하고 일렛당신으로 좌정한다. <할망본풀이>가 기자·산육신의 내력담이란 사실을 감안한다면, <할망본풀이> 속 동해요왕말젓딸아기와 일렛당신 계열인 동해요왕말젓딸아기의 유사성과 이 같은 속성을 띤 여신의 패배라는 결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신화에서 신들의 갈등과 경쟁, 승패의 결과는 신앙공동체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신적 영향력, 신격의 신성성이나 권위의 상관 관계를 대변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뒤늦게 등장한 여신이 먼저 신직을 수행하던 여신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할망본풀이>의 맥락은 어떻게 <할망본풀이>가 형성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커다란 실마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나 두 여신의 출자 내력은 상당히 중요한데, 양자가 아주 대조적이다. 이런 대치 상황에서 토착신앙과 유입신앙의 갈등과 전복 과정을 훑아볼 수 있다. 아래에 두 여신의 출자 내력을 간략하게 표로 제시한다.



[표] 「할망본풀이」에 나타난 두 여신의 특성 대비

### 동해요왕말젓딸아기는 동해용왕의 딸이니 수신(水神)·여해신(女海神)의

아기를 품에 안아 재우고, 아기를 등에 업고 달래며, 음식 먹이기, 목욕시키기 등 일련의 육아 행위가 그대로 재현된다. <아기놀림>의 비념에는 ‘일곱아기 단마실청’ 혹은 ‘아기 나청’의 내력을 중심으로 잃어버렸던 아기로부터 인간에게 내려지는 홍험(물비리, 당비리 등의 피부병과 안질)을 피하고자 하는 불양(祓禳)의 기원이 포함되어 있다.

- 1) 용왕녀는 큰 범주에서 신격의 출자가 용왕, 즉 바다와 관련한 여신이다. 이러한 출자 내력을 가진 여신은 달리 잠수(해녀), 어부 등의 생업과 안전을 보살피는 해신으로 좌정하는 경우도 있다. 동해요왕말젓딸아기는 이 같은 용왕녀 계열의 여신 가운데 하나이다. 한편 일렛당신의 일대기는 경우에 따라 결연을 맺는 남성신의 계보나 신격이 달라지기도 하고, 결연 없이 추방을 당하여 인세에 내려온 신격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계열에 따라 ‘용왕녀’와 전혀 상관없는 내력을 전승하기도 한다.

속성을 지닌다. 이 여신의 출자담은 당신본풀이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기아(버려진 아이) 화소, 표착 화소를 포함한다. 동시에 토착적 산육신앙(일렛당 신앙)과의 상관성을 가늠할 수 있다. 반면 명진국따님아기는 이와 매우 상이한 출자 내력을 갖는다. 고난과 시련 따위는 겪지 않고 노각성주 부줄을 통해 하늘에서 강림한다. 보통 옥황명진대왕(혹은 명전대왕)의 딸로 나타나지만 구연본에 따라, 석가여래와 석가모니의 딸이라든가 석가대왕과 석가산의 딸로 묘사되는 경우도 있다. 천신(天神)과 불신(佛神)의 속성을 복합적으로 지닌 신격인 셈이다.<sup>1)</sup>

실제로 제주도 무속에서 토산 일렛당신 계열의 본풀이나 의례(〈아기놀림〉)에는 육아 생활 따위의 민간 습속이 비교적 생생하게 담겨 있다. 〈할망본풀이〉를 포함한 삼승할망(삼신)관련 신앙과 의례는 그보다 신화적·상징적인데다 뒤늦게 유입되었을 천신신앙, 불교신앙으로 강하게 뭉쳐진 모습을 보인다.<sup>2)</sup> 삼승할망을 위한 맞이굿인 〈불도맞이〉는 〈옥황천신불도연맞이〉라 불린다. 이때 심방은 송낙을 쓰고 〈수룩침〉이라는 의례를 연행하는데,<sup>3)</sup> 특별하게 바랑이라는 무구를 사용한다. 바랑은 불교의 바다가 무구로 변형된 것이다. 심방은 바랑을 치며 담불이라는 무가를 부르는데, 담불은 ‘나무아미담불아’라는 후렴구로 인하여 붙여진 곡명(曲名)이다. 심방에 따라 〈수룩침〉 제차에서 천수경을 구송하는 경우도 있다.

신앙 체계의 재편 과정 가운데 천신을 최상위신으로 관념하고 하위에 지신(地神), 산신(山神), 해신을 두는 양상은 매우 보편적인 것이다. 제주도 무속에도 신들의 위계를 설정해 놓은 ‘젯드리’라는 것이 있다. 젯드리에서 지고(至高)의 존재는 천신으로 비정되는 옥황상제다. 그 뒤 상위신들은 땅, 산, 바다를 관장하는 신들, 불교적 성격을 띠는 절 차지 신들(서산대사, 육관대사), 멩진국할망(삼승할망) 순이다. 멩진국할망에 이르러서야 본풀이

---

1) 명진국따님아기를 달리 삼승할망, 명진국할망, 생불할망, 불도할망, 공씨방씨서씨여리(여래)할마님이라고도 부르는데, 생불과 불도는 ‘불’, ‘도(또)’ 등의 음상적 유사성 때문에 생불또(生-불또)가 불도(佛道)로 의미 전화(轉化)된 것이라 추정하는 실정이다. 공씨방씨서씨여리할마님은 공중에 떠서 방방곡곡 다니며 포대를 주고 부처를 섬기는 할마님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신명이다.

2) 인간 삼승할망의 존재는 별도로 확장하여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인간 삼승할망은 조산무(助産巫)이자 치병무(治病巫)인데, 심방과는 별개의 유형에 속한다. 삼승할망의 직능, 일렛당신의 직능을 모두 갖춘 특별한 화신(化身)이라 볼 수도 있다. 상세하게 다루려면 논의가 번잡해지니 상세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

3) 제주도 무속에서 삼승할망을 가시적으로 재현한 기메를 ‘할망송낙’이라 부른다. 이 외에 송낙류(고깔류)에 해당하는 기메는 북두칠원성군을 의미하는 ‘칠성송낙’이 있다. 양자 모두 불교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는 신격들이다.

(〈할망본풀이〉)와 독립의례(〈불도맞이〉)가 온전히 짝을 맞추어 전승된다. 명진국할망은 이 같은 존재들 가운데 셋도리 상 가장 높은 위계의 신인 것이다.

특히나 〈할망본풀이〉는 새로운 직능과 좌정처 차지를 위한 경합이 아닌, 기존 신직을 두고 출자가 우세한 신격이 이미 존재하는 신격을 밀어내는 신직 교체의 과정을 다룬다. 때문에 본풀이나 의례의 형성과 변화는 극명하게 신격 간의 우위를 벌이는 쪽, 우세한 신격의 신성성을 드높이는 쪽으로 거듭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무속에서 모시는 신격에 유(學)·불(佛)적 속성, 윤리적·도덕적 속성을 덧입히는 과정은 신앙공동체의 의도적 윤색이다.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발맞추어 신격의 신성성을 드높이던 자연스러운 방식이었다. 동해요왕따님아기의 악행과 명진국따님아기의 출자 내력 모두가 이 같은 공동 작업의 결과물이다.

〈할망본풀이〉에 등장하는 두 여신이 산육을 담당하면서도 모신(母神)의 면모를 띠지 않는 대신, ‘영웅성’이 대폭 강조되어 있는 원인이나 명진국따님아기의 출자 내력이 다소 혼란스럽게 나타나는 정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이는 두 여신의 갈등, 곧 토착 신앙과 유입 신앙의 충돌과 재편이 신앙공동체에 얼마나 중대하고 참여한 것이었는가를 암시한다.

〈할망본풀이〉는 토착적 산육신이 외래의 산육신에게 밀려나는 과정을 문학적으로 형상화 한 신앙적 산물이다.<sup>1)</sup> 신격의 교체와 변화는 응당 신앙 체계 전반의 재편 과정으로 확장되기 마련이니, 이런 움직임 속에서 제주도 산육신앙 체계도 서서히 재정립되었을 것이다. 구할망 줄기에 피부병, 경풍 등을 불러주는 할마님을 포함시키는 사례,<sup>2)</sup> 삼승할망이 마마를 포함하여 안질, 피부병 등도 낫게 해준다는 믿음이 투영된 사례 등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sup>3)</sup>

〈할망본풀이〉를 위시하여 이 같은 과정들이 관련 신앙 체계 전반에서

---

1) 이와 관련한 논의는 강정식, 「할망본풀이의 전승양상」,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세미나 발표문, 2003, 17-32쪽; 김현선, 「〈삼승할망본풀이〉의 여신투쟁이 지니는 신화적 의미」, 『민속학연구』 17, 국립민속박물관, 2005, 179-208쪽; 이현정, 「제주도 서사무가 〈할망본풀이〉의 형성원리 연구: 〈할망본풀이〉와 〈일렛당본풀이〉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등에서 다루어졌다.

2) “구할망 줄기로 강비리, 물비리, 흥허멀, 너벅지, 경풍, 정세, 불어주는, 할마님까지, 불도연마지로, 재이르자.” 현용준 엮음, 『풍속무음(축사문) 下』,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201쪽.

3) “할마님에서 상가매 증가매 하가매 불도막기 운동 허여근 머리 등창 활염도 벗고, 눈에 안질, 입에 가매, 목에 7른징 화선 장염징 다 풀려근 주는 범입네다.”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94쪽.

확인된다는 사실은 꽤 행운인 듯하다. 토착적인 당신앙이 패배하고 새롭게 유입된 신앙이 일반신앙으로서 우위를 선점한 결과를 두고 행운이라 하는 것이 아니다. <할망본풀이>가 유래없는 독자적인 산육신 신화로 거듭날 수 있었던 본질, 곧 신앙공동체의 심성사적 가치와 그 구현 방식을 <할망본풀이>가 제대로 간직하고 있기에 행운이라는 뜻이다.

<할망본풀이>에서 본풀이 형성의 본질과 심성사적 가치, 이 둘을 동시에 잘 보여주는 사례는 ‘꽃 피우기 경합’이다. 사실 두 여신의 승패는 ‘정상적인 해산’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에서 벌써 판가름 나버린다. 동해요왕말젯딸아가기가 포태를 주었지만 해산시키지 못한 임박사의 아내를 명진국따님아가기가 해산시키는 사건은 ‘꽃 피우기 경합’보다 먼저 배치되어 있다. 생불신으로서의 결정적인 자질뿐만 아니라 출생 내력면에서도 이미 명진국따님아가기는 동해요왕말젯딸아기를 월등히 앞섰다. 굳이 경합 없이도 갈등을 종결할 수 있었던 셈이다.<sup>1)</sup> 그런데 어째서 두 여신은 ‘꽃 피우기 경합’을 벌인 뒤에야 승패를 판가름 낼 수 있었던 것일까.

‘꽃 피우기 경합’의 방점은 승패보다 두 여신이 움푹운 ‘꽃나무의 모습’에 있다. 두 여신이 씨앗을 움푹워 자라게 한 꽃나무의 모습은 서로 다르되 균형을 이룬다. 명진국따님아가기가 움푹운 꽃나무는 ‘외뿌리에 많은 가지를 지녔고 무수한 꽃이 핀 나무’였고, 동해요왕말젯딸아이의 것은 ‘외가지에 달린 한 송이 꽃이지만 그 뿌리는 수없이 뻗어 있는 나무’였다.<sup>2)</sup>

두 여신이 움푹운 꽃나무의 상징성은 실로 다채롭다. 꽃과 가지는 땅 위에 뿌리는 땅 속에 있으니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꽃은 신화적으로 생명과 결실을 상징하니 명진국따님아가기가 이를 무수히 움푹웠다는 설정은, 그녀가 막강한 생산 권능을 소유한 신격이자 무수한 인간의 번성(다산)을 이끌 수 있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 한편 동해요왕말젯딸아가기의 꽃나무는 무수한 꽃을 움푹우지 못한 대신

1) 강정식은 동해요왕아가씨와 명진국아가씨는 본래 생불꽃이 없어도 포태를 주는 능력을 지닌 존재이며, 굳이 꽃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이 발아한다는 신화적 사유를 덧입히지 않아도 무리가 없으므로 「할망본풀이」의 형성에 있어 ‘꽃 피우기’ 경쟁 삽화를 가장 차후에 삽입된 것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였다. 강정식, 위의 논문, 29-31쪽.

2) 이본에 따라 동해요왕말젯딸아가기의 꽃이 검뉴울꽃(시든 꽃)이나 벌레 먹은 꽃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시든 꽃이나 벌레 먹은 꽃의 등장은 저승할망이 아이들에게 질병이나 흉험을 주는 존재임을 감안하면 전연 이질적인 설정은 아니다. 하지만 대개 명진국따님아가기는 온갖 주화들이 핀 사만오천 육백 가지를 외뿌리가 지탱하는 꽃나무를, 동해요왕말젯딸아가기는 한 송이 꽃이 핀 외가지를 사만오천 육백 줄기의 뿌리가 지탱하는 꽃나무를 움푹우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만큼의 무수한 뿌리를 내렸다. 상식적으로 수많은 꽃과 가지를 지탱하려면 뿌리 역시 그에 걸맞을 만큼 견고해야만 한다. 탄생(삶)의 엄숙함과 귀중함은 그와 대칭적 방향성을 가진 뿌리(죽음)에서 비롯된다. 뿌리가 없다면 꽃과 가지도 없다. 제대로 된 뿌리를 갖추지 못했다면 꽃과 가지는 영글 수 없다. 이처럼 탄생과 성장, 죽음과 질병은 사실 생고(生苦), 병고(病苦), 사고(死苦)의 연장선 속에서 공존하기도 대치하는 것이다. 이들은 돌이면서 하나다.

뿌리는 꽃이 움틀 수 있도록 영양분을 흡수하여 가지로 올려 보낸다. 꽃이 피는 밑천을 뿌리가 만드는 셈인데, 이렇게 본다면 동해요왕말젯딸아기(구할망)의 근간이 토착적인 일렛당신앙이고 이를 발판으로 명진국따님아기(삼승할망)이 굳건하게 자리할 수 있었다는 상징성을 띤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다. 나아가 꽃과 뿌리의 수적·방향적 균형을 삼신신앙(유입신앙)과 일렛당신앙(토착신앙)이 따로 또 함께, 산육 신앙 체계를 지탱하는 양면과도 유사하다고 보아도 좋겠다. 민간에서 육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앙민들의 해결 절차 또한 이런 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리 하나를 두고 피할 수 없는 경합이 벌어졌다. 승패는 결정되었지만 패자는 거세되지 않았다. 삶과 죽음, 꽃과 뿌리의 양면에서 아이들을 관장하는 산육신으로 분리·통합되어 아이 목숨의 전반을 주관한다. 어느 한 쪽만으로는 온전한 신화적 질서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인간 삶의 현상을 해명할 수 없게 된다. 맞서서 버티는 관계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조화와 상보의 상생 관계가 되었다. 이처럼 ‘꽃 피우기 경합’에는 단순하게 승패를 가리는 수단만이 아니라, 상생과 공존의 길을 모색해 온 신앙공동체의 신화적 논리, 방법론적 미학이 내재되었다는 사실을 읽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것이 <할망본풀이>의 문학적·역사적·민속적 가치이자 미감의 핵이다. 신화적 자산이라별게 아니다. <할망본풀이>에서 주인공, 곧 경합의 승자는 명진국따님아기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본풀이와 관련 신앙 체계를 더욱 값지고 풍부하게 만든 주역은 명진국따님아기와 동해요왕말젯딸아기 모두라 할 만하다. 길항 속에서도 진정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할망본풀이>는 우리에게 전하는 동시에 묻고 있는 셈이다.



# 3강

- <삼승할망에게 굴복한 마마신(媽媽神),  
대별상마누라의 내력- '마누리본풀이' >



# <삼승할망에게 굴복한 마마신(媽媽神), 대별상마누라의 내력- ‘마누라본풀이’ >

류진옥(제주학연구소 연구원)

## 인류의 오래된 전염병, ‘두창(痘瘡)’ .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한 이 시기에 ‘마누라본풀이’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욱 의미있게 여겨집니다. ‘마누라본풀이’ 는 ‘천연두’ 를 관장하는 신격(神格)인 ‘대별상마누라’ 에 대한 본풀이입니다.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주로 ‘두창(痘瘡)’ 이라 불렸던 천연두는 지난 시기 인류에게 다가왔던 많은 전염병 중 대표 격에 속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전염병으로 ‘괴질(怪疾)’ 이라 불렸던 ‘콜레라’ 가 있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병증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레 죽어가는 것을 보고 ‘괴질’ 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 이후 ‘호열자’ 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1920년 전국적으로 유행한 호열자 중 제주도가 병독이 가장 심한 곳으로 지목되었다는 기사가 남아있기도 합니다.<sup>1)</sup>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전염병은 갑자기 출몰하여 그것의 실체를 인식하기 전에 수많은 인류의 목숨을 잃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과거의 전염병 또한 한 지역에서 발생하여 전세계로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19세기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콜레라는 인도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번져 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sup>2)</sup> 이와는 달리 천연두는 그 발생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오래된 질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식영이 종두법을 배워 국가 차원의 우두법을 시행한 것이 1885년이니

1) “제주도에서 보균자는 없었으나, 작년여름에 호역으로 인하여 전멸이 되다시피한 전남제주도(濟州島)는 도선 전도에 데일 호열증병독이 똥후한 곳으로 지목되는데 도당국에서는 경무국의 지시로 지난번 그셔음늬의 작년 가을의 환자 와땀 그가죽 빅명에 대하여 호열증균의 검변도사를 행하였는데 작년 가을에 쇼독을 완전히한 식담인지 한명의보균 자도 발견치못하였더라”

[출처 :매일신보, 1921년06월07일 3면, 「호균의 검변조사(虎菌의 檢便調査)」]

2) 신동원, 『호환 마마 천연두, 병의 일상 개념사』, 돌베개, 2013, 146쪽 참조.

고려에서부터 조선 말기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천연두는 특정한 치료법 없이 두려움의 존재로 자리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천연두는 오랜 기간 의학적 다스림이 아니라 무속적 금기를 통한 다스림으로 여겨왔습니다.

우리나라 풍속에는 두창신(痘瘡神)을 중히 여기는데 그 금기의 골자는 제사·초상집 출입·연회·성생활·외부사람·기름과 꿀·비린내와 누린내·더러운 냄새를 금기하는 것이며 이것들은 의방(醫方)에도 기재되어 있다. 대개 두창은 누에처럼 사물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어찌다가 그것을 범하면 죽거나, 아니면 열에 여섯, 일곱은 위태하다는 것이다. 만약 목욕하고 기도하면 거의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그것을 믿고 지성으로 받든다. 심지어 나가고 들어오는 때는 반드시 의관을 갖추고 고하기까지 했으며, 두창이 끝난 지 1, 2년 뒤에도 제사를 꺼렸다. 비록 선비라 하더라도 풍속에 구애되어 심지어 제사를 폐하기까지 했다. [어숙권의 『패관잡기』]<sup>1)</sup>

세속에서 아이들의 질병에는 신이 관계한다 하여 받들어 섬기는 것이나 꺼리고 피하는 것이 많으며, 오로지 기도만 일삼고 약을 쓰지 않는다. [유몽인의 『어우야담』]<sup>2)</sup>

약을 쓰면 오히려 ‘두창신’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 금기를 엄격히 지킨 것은 민간에서만이 아니었으며, 왕실에서도 쉼 내에 술과 고기를 금하고 세조의 경우는 모든 정사를 중단하는 등 금기를 엄하게 지켰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다수 남아있습니다.<sup>3)</sup>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과거 천연두에 대한 인식은 현재까지 전국의 무속 의례 곳곳에 천연두신의 존재와 그에 대한 의례로 남아있습니다.

1) 이능화, 『조선무속고』, 창비, 2013, 362~363쪽.

2) 이능화, 『조선무속고』, 364쪽.

3) 신동원, 『호환 마마 천연두, 병의 일상 개념사』, 170쪽 참조.

## 제주의 두창신(痘瘡神)

제주의 두창신은 ‘얼굴 차지’ 신입니다. 하늘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산을 차지하는 등 인간 사는 세상 곳곳을 차지한 여러 신들 가운데 두창신은 인간의 얼굴을 차지하는 신입니다. 제주의 무속신 중 일반신으로는 유일한 질병신입니다. 그런데 보통 여성신으로 설명되는 다른 지역의 두창신과 달리 제주의 두창신은 남성이며, 또한 작은마마(홍역)를 담당하는 부인과 함께 부부신으로 등장하는 것이 특별합니다.

약칭으로 보통 ‘마누라(마마)’ 라고 하는 영웅적男神이라 관념된다. ‘홍진국대별상’은 夫神, ‘서신국마누라’는 妻神이라 하기도 하고, 전자는 천연두신, 후자는 작은마마(紅痘)신이라 하기도 한다. 큰굿 때의 개별 의례는 없으나, 마마를 한 후 ‘마누라배송’이라는 의례를 하며, 신화는 산육신 신화(産育神 神話) ‘삼승할망본풀이’의 일부로 의례 때에 ㅅ된다.<sup>1)</sup>

제주 무속 안에서 갖는 두창신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한 위의 글과 같이 대별상마누라 부부신과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양육하는 신직(神職)을 가진 산육신 삼승할망이 ‘미누리본풀이’에 있어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신격입니다. 생명 탄생과 그에 대한 위협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는 본풀이의 전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생명 존중에 대한 자세를 배울 수 있게 합니다.

## 마누라본풀이

마누라본풀이는 첫 대목부터 삼승할망과 대별상이 만나고 대립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흐를(一日) 천맹(千名) 생불을 주고 흐를 만맹 환생(還生)을 줄”<sup>2)</sup> 할마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인간 생명의 꽃밭인 서천꽃밭에 있는 서천강의 다리를 건너 인간 땅에 내리고자 합니다. 하루 천 명의 생명을 점지하고

1) 현용준, 『濟州島 巫俗 研究』, 집문당, 1986, 153쪽.

2)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105쪽.

하루 만 명의 생명을 되살리는 일이 삼승할망의 신직입니다.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바빠 나서는 길에 멀리 멎들어진 고관의 행차가 보입니다.

“앞인 영기(令旗) 뒤인 몸기 영서기(令司旗) 과랑당돌영기 별련뒤편계(別輦獨轎) 쌍가메(雙駕馬) 삼만관속(三萬官屬) 육방하인(六房下人) 거느리고” 1) 위풍도 당당하게 행차하는 대별상마누라의 행렬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엔 ‘인물도감책(人物都監冊)’ 이 들려져 있습니다. “만민(萬民) 즈손(子孫)에 호명을 주저” 2) 정리한 아이들의 명단입니다.

할마님은 아이들 명단을 들고 위세 등등하게 행차하는 대별상을 보고 바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청을 합니다. “대별상님아 저가 생불을 주고 환생을 준 즈손에 고온 얼굴로 호명하여 주십시오.” 3)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별상의 오만하기 그지없는 후안무치한 태도뿐이었습니다. 대별상은 ‘봉에눈(鳳眼)’ 을 부릅뜨고 삼승할망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 여성(女性)이라 흐는 건 꿈에만 시꾸와도 새물(邪物) 인디 남즈(男子)의 대장부 행차질(行次路)에 사망(事望)흐 여성(女性)이라 흐게 웬일이냐? 꽤쌌흐다.” 4) 대별상이 삼승할망을 이렇게 모욕하고 이어서 한 일이 아이들의 얼굴을 ‘두용박’ (뒤용박)이 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할마님은 이러한 대별상의 행태를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았습니다. “대별상의 흐는 짓이 꽤쌌흐구나. 나신디도 흐번 굴복스정(屈服事情) 흘 때가 이시리라.” 5) 즉, 대별상이 와서 당신 앞에 무릎 꿇게 할 일을 결심한 것입니다.

할마님은 바로 대별상의 처인 ‘서신국(西神國)마누라’ 에게 생불꽃을 들어 새생명을 점지합니다. 아이를 점지하는 일뿐만 아니라 아이가 이 세상에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할마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대별상을 혼내려는 마음에 할마님은 서신국마누라의 해복(解腹)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열 달이 지나고 열두 달이 넘어도 해산하지 못하는 서신국마누라는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남편인 대별상을 불러 할마님을 청해 모셔오라고 합니다.

---

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05쪽.  
2)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05쪽.  
3)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05쪽.  
4)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05~106쪽.  
5)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06쪽.

“남즈(男子)의 대장부가 어찌 예성(女性)을 청흐레 가리야, 흐주마는 마누라가 죽게 돼엿시니 흐번 가보저.”<sup>1)</sup> 대별상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사경을 헤매는 처를 생각하여 큰 결심을 하고 삼승할망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격이 시작됩니다.

백망건(白網巾)에 백도포(白道袍)를 차려입고 마부(馬夫)를 거느리고 말을 탄 대별상이 할마님 앞에 찾아갔지만 할마님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는 대별상은 댕돌 아래로 양무릎을 꿇고 엎드려 청합니다. 그제서야 눈길을 준 할마님은 대별상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날 너의 집의 청흐고 싶으거들랑 어서 바빠 돌아강 대공단고칼로 머리 삭삭 가까두고 흐 침 질른 굴송낙 둘러쓰고 두 귀 누른 굴장삼(長衫) 둘러입엿 멘보선 바람에 이이 알로 왕 업대흐민 내가 가리라.”<sup>2)</sup> 대별상에게 중의 복장을 하고 다시 와서 무릎을 꿇고 청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대별상은 다른 방도가 없어 삼승할망의 조건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의 복장을 하고 다시 삼승할망을 찾아가 댕돌 아래 엎드린 대별상에게 그제서야 할마님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만흐난 하늘 노프고 땅 느자운 줄 알겠느냐? 뛰는 제주가 좋댕 허여도 느는 제주가 싯젠 허여라.”<sup>3)</sup>

“예, 과연 잘못허였수다.”<sup>4)</sup>

그제서야 할마님은 대별상에게 서천강에서 대별상의 집까지 온갖 명주천으로 길을 놓으라 하고 그 길을 따라 대별상의 집으로 갑니다. 그 집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서신국마누라를 만난 할마님이 은실 같은 손으로 허리를 삼세번 쓸어 내리니 바로 ‘구애문(궁궁의 문)이 열리고 아이도 서신국마누라도 살려냈습니다.

---

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06쪽.

2)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06쪽.

3)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06쪽.

4)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06쪽.

##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은 것을 알겠느냐

조선시대 고위 관리의 행차 모습을 그대로 닮아있는 대별상마누라의 등장은 상당히 고압적이고 위엄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 용어의 하나였던 ‘마마’ 나 ‘마누라’ 라는 존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도 천연두에 대한 두려움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본풀이 안에서 대별상이 삼승할망을 대하는 태도는 전형적인 남존여비와 여성 혐오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삼승할망의 태도는 공경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천연두’ 의 다른 이름인 ‘호명’ 을 주고자 행차하는 대별상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고운 얼굴로 ‘호명’ 이 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삼승할망의 태도는 ‘호명’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상적입니다. 이는 천연두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그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대별상의 흥형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점지한 존재로서, 인간 자손들이 정해진 운명 안에서나마 그 상처가 최소화하기를 바라는 산육신으로서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삼승할망에게 대별상은 후안무치의 태도를 보이지만, 삼승할망은 이를 좌시하지 않습니다. 결국 서신국마누라의 해산이 어려움을 겪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삼승할망을 찾아온 대별상은 삼승할망이 대별상에게 처음 했던 그대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삼승할망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삼승할망은 만족하지 않고 중의 차림새를 하고 오라는 요구를 합니다. 중의 신분이 미천했던 시대를 반영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모두 들을 수밖에 없던 대별상에게 그제서야 삼승할망은 말을 건네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하늘 높고 땅 낮은 줄 아느냐?” 입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와 겸양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자연의 순리에 순응해야 하는 삶에 대한 태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무분별한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하여 전 세계가 지독한 전염병과 기후 위기를 앓고 있는 요즘 더욱 새겨야 할 경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혹독한 삼승할망의 가르침에 대별상의 뼈아픈 인정과 반성이 있는 후에야 서신국마누라와 뱃속의 아이는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마님의 은실 같은 손으로 서신국마누라의 허리를 삼세 번 쓸어내려  
생명을 지켜냈던 것처럼 자연의 질서를 각기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  
현대인들이 마주하는 크고 작은 재앙을 대비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가르침  
을 마누라본풀이는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신동원, 『호환 마마 천연두; 병의 일상 개념사』, 돌베개, 2013.

이능화, 『조선무속고』, 창비, 2013.

현용준, 『濟州島 巫俗 研究』, 집문당, 1986.

,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도서출판 각, 2007.



# 4강

초공본풀이

- 제주도 심방의 '멩두' 무업조상(巫業祖上)과 굿의 유래



# 초공본풀이

## - 제주도 심방의 '멩두' 무업조상(巫業祖上)과 굿의 유래

강소전(제주대학교 강사)

### 1. 심방 조상과 굿의 내력, 초공본풀이

임정국 대감과 짐진국 부인은 부자로 잘 살았지만 늦도록 자식을 얻지 못하여 늘 신세를 한탄하였다. 어느 날 황금산 도단땅의 소사중이 집에 권제삼문을 받으러 온 것을 계기로 절에 백일 불공정성을 드려 딸을 낳는다. 마침 가을 단풍이 들 때 태어나니 딸의 이름을 '저 산 줄이 번고 이 산 줄이 번어 왕대월석 금하늘 노가단풍 자지멩왕아기씨' 라고 이름 짓는다.

자지멩왕아기씨가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부모는 하늘 옥황으로부터 벼슬살이를 떠나라는 명을 받는다. 부모는 딸아이를 함께 데리고 갈 수 없으니 자지멩왕아기씨를 염려하여 살장에 가두고 하인인 느진덕정하님에게 보살펴달라고 당부한다. 부모가 떠난 뒤 아기씨는 살장에 갇혀 지낸다. 그런데 하루는 황금산 도단땅의 주자선생이 권제를 받으러 자지멩왕아기씨 집으로 와서 살장의 문을 열고 자지멩왕아기씨의 상가마를 쓰다듬었다. 주자선생은 자지멩왕아기씨에게 나중에 자신을 찾을 일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자지멩왕아기씨는 주자선생의 증표(본메본짱)를 받아둔다.

주자선생을 만난 뒤 자지멩왕아기씨는 임신을 하게 되고 느진덕정하님은 부모에게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연락을 한다. 부모는 딸의 임신을 알게 되자 자지멩왕아기씨를 느진덕정하님과 함께 집에서 내쫓는다. 둘은 정처 없이 먼 길을 떠난다. 길을 가는 도중에 칼쓴드리, 애슨드리, 등진드리, 올은드리, 거은물, 조심드리, 수삼천릿질 등 여러 고난을 겪는다. 그렇게 가다 보니 주자선생이 있는 절에 당도하여 자지멩왕아기씨는 주자선생을 만나 증표를 내놓았다. 주자선생이 자지멩왕아기씨에게 자기를 찾아온 인간이 분명하다면 찰벼 두 동이를 손톱으로 까서 올리라고 하자 주위의 새들이

날아들어 모두 까주었다. 주자선생은 자지멩왕아기씨를 인정하면서 중이 부부살림을 하지 않으니 불도땅에 가서 살라고 하였다.

자지멩왕아기씨는 불도땅에서 아들 삼형제를 낳는다. 본멩두는 9월 초 여드레에 어머니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신멩두는 9월 열여드레에 어머니 왼쪽 겨드랑이에서, 살아살축 삼멩두는 9월 스무여드레에 어머니 애달픈 가슴을 뜯어 헤치며 태어난다. 삼형제는 아버지 없는 서러움을 겪으며 성장한다. 살림도 가난하였기 때문에 서당에서 온갖 심부름을 하며 귀동냥으로 공부를 한다. 서당의 삼천선비들은 삼형제를 두고 재(灰) 위에 쓰는 연습을 하느라 항상 재를 묻히고 다녔기 때문에 ‘젯부기 삼형제’ 라고 이름 짓는다.

젯부기 삼형제는 열다섯이 되자 과거를 치르기 위하여 삼천선비들의 종으로 함께 길을 떠난다. 삼형제는 삼천선비들의 갖은 모략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장원급제를 한다. 삼천선비들은 삼형제와 대한 시기와 질투로 자지멩왕아기씨를 삼천전제석궁에 가두어 버린다. 결국 삼형제는 벼슬을 버리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방도를 찾는다. 삼형제는 외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주자선생을 찾아가라는 말을 듣는다. 삼형제는 아버지인 황금산 도단땅 주자선생을 찾아가 스스로 전생 팔자를 그려쳐 무구(멩두, 연물)를 마련하고 의형제를 맺은 너사메너도령과 함께 곳을 하여 어머니를 살린다. 삼형제는 어머니를 너사메너도령과 함께 어주에 삼녹거리 당주집에 머물게 하고 자신들은 삼시왕으로 들어서서 양반에게 원수를 갚는다.

그때 유정승 따님아기가 여섯 살 나는 해에 육관대사로부터 육간제비를 얻는다. 그 뒤 유정승 따님아기는 일곱 살부터 일흔일곱 살이 되도록 눈이 어둡고 죽다 살다하기를 거듭한다. 결국 유정승따님아기는 역시 팔자를 그려쳐 삼시왕으로부터 무구를 얻고 자부장자 집의 외딸아기를 위한 곳을 하여 심방이 되었다(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신구문화사, 1980)).

- 천하 임정국대감, 지하 짐진국대감 : 젯부기 삼형제의 외조부모. 자지멩왕아기씨의 부모. 부부간에 자식이 없어 근심하다가 불공을 드려 딸을 얻음
- 황금산 도단땅 주자대선생 : 젯부기 삼형제의 부. 자지멩왕아기씨를 잉태시켜 삼형제를 낳게 함. 나중에 삼형제에게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곳을 하는 방도를 알려줌
- 저 산줄이 밍고 이 산줄이 밍어 왕대월석금하늘 노가단풍 자지멩왕아기씨

(자지멩왕아기씨) : 젓부기 삼형제의 모. 주자대선생을 찾아가 불도땅에서 삼형제를 낳음. 나중에 삼형제에 의해 당주를 지키는 존재가 됨

- 젓부기 삼형제 : 본멩두, 신멩두, 살아살축 삼멩두 삼형제. 서당에 다니며 재(灰)에 글씨 연습을 하며 공부를 하였다고 해서 젓부기 삼형제라고 불림. 과거 급제를 버리고 깊은 궁에 갇힌 어머니를 살린 뒤 저승 삼시왕으로 들어서 무업조상으로 좌정
- 너사무너도령(삼형제) : 젓부기 삼형제의 의형제. 젓부기 삼형제와 결연하여 함께 굿을 하고 무악기(연물)를 담당함
- 유정승 따님아기 : 최초의 심방. 여섯 살에 육간제비를 얻은 뒤 일곱 살부터 일흔일곱 살이 되도록 눈이 어둡고 죽다 살다하기를 거듭하다 삼시왕으로부터 무구를 얻고 굿법을 전수받아 자부장자 집의 외딸아기를 위한 굿을 함



<사진 1> 초공본풀이 구연



<사진 2> 초공본풀이 구연

### [젓부기 삼형제와 너사무너도령(삼형제)]

초공본풀이에 등장하는 본멩두, 신멩두, 살아살축 삼멩두를 두고 ‘젓부기 삼형제’ 라고 일컫는다. 젓부기 삼형제는 깊은 궁에 갇힌 어머니 자지멩왕아기씨를 살리기 위해 굿을 해야 하는데, 이때 너사무너도령 삼형제를 만나게 된다. 젓부기 삼형제와 너사무너도령 삼형제는 같은 팔자임을 인식하고 서로 의형제를 맺는다. 이들은 자지멩왕아기씨의 속옷 속으로 함께 넘나들어 결연한다. 나중에 젓부기 삼형제는 심방의 무업조상인 삼시왕으로 들어서고, 너사무너도령 삼형제는 자지멩왕아기씨와 함께 당주를 지키며 무악기인 연물(북, 설췌, 대양, 장구)을 맡은 신으로 좌정한다. 너사무너도령

삼형제의 성격은 신화에 등장하는 최초의 소미라고 할 수 있다. 초공본풀이에 따르면 젓부기 삼형제와 유정승따님아기를 도와 실질적으로 굿을 함께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 [유정승따님아기]

유정승따님아기는 초공본풀이에 따르면 최초의 심방이다. 일곱 살에 육간 대사(혹은 삼베중, 삼형제) 의해 육간제비라는 무구를 얻고는 안병(眼病 즉 神病)이 들어 일흔일곱 살이 되도록 안병을 반복하다가 결국 ‘팔자를 그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침 동네에 부잣집 딸이 죽어가므로 딸을 살리기 위한 굿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막상 무구가 없어 굿을 못하게 되자 젓부기 삼형제의 어머니인 자지멩왕아기씨를 찾아가서 자격을 인정 받고 수양딸로 들어서서 무구 일체를 물려받는다. 굿을 하여 부잣집 딸을 살리며 최초의 심방이 되고 후대에 굿법을 전수하였다. 젓부기 삼형제가 굿법을 창조한 신이라면, 유정승따님아기는 굿법을 전승한 신이다. 현재의 제주 심방들도 유정승따님아기가 행한 굿법에 따라 신굿을 치르고 무업에 들어서는 것이다.

### [당주]

당주는 심방이 멩두를 모시는 곳이다. 심방은 평소 자신의 집에 당주를 마련하여 멩두를 모시다가 굿이 나면 굿판에 가져가 공깃상에 둔다. 초공본풀이에 따르면 젓부기 삼형제는 저승 삼시왕으로 올라가지만, 삼형제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멩두는 당주에 남는다. 젓부기 삼형제에 의하여 어머니 자지멩왕아기씨와 너사무너도령 삼형제는 당주에 좌정하여 무구를 지키는 신이 되었다. 더 나아가 무구를 마련 하러 유정승따님아기가 찾아오니 당주집에서 멩두를 중심으로 하는 무구의 전승이 이루어진다. 당주는 초공본풀이의 무업 관련 신들이 좌정하는 특별한 곳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주의 장식물을 보아도 드러난다. 기메인 ‘살장’ 과 ‘육고비’ 를 걸어놓기 때문이다. 심방은 해마다 삼멩두의 탄생일인 9월 8일, 18일, 28일에 당주제를 지낸다.



<사진 3> 당주

## 2. 멩두와 심방의 무업(巫業)

### [제주의 무(巫), 심방]

심방은 제주에서 무당을 이르는 말이다. 이미 『월인석보』(1459년)와 『능엄경언해』(1462년)라는 15세기 문헌에 심방이라는 한글 표기가 있다. 17세기 초 이건(李健)의 『제주풍토기』와 18세기 초 이형상(李衡祥)의 『남환박물』에는 심방과 무업의 기록이 있다. 심방의 오랜 역사를 알 수 있다. 심방이 두루 사용하는 보편적인 명칭이나, 이밖에 심방을 부르는 이칭(異稱)도 존재한다. 이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존재한다. 첫째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부르는 이칭이다. ‘나그네’, ‘일안어른’ 등이다. 둘째, 심방이 굿을 집행하면서 스스로 사용하는 것으로 ‘신의 성방’, ‘신의 아이’, ‘거형집스관’ (舉行執事官), ‘그영신내(거영신내)’ 등이다. 심방 자신을 여러모로 달리 표현하는 말이다.

심방은 초공본풀이라는 신화를 자신들 무업의 내력으로 삼고, 본풀이에 근거를 둔 ‘멩두’ 라고 부르는 무구를 누구나 조상으로 섬긴다. 자신도 신앙민과 함께 같은 마을에 살며 크고 작은 굿을 한다. 심방은 신과 신앙민을 연결하여 기원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굿을 하면서 신앙민의 소망을 신에게 전달하고 여러 형태의 점을 쳐서 신의 뜻을 확인하여 신앙민에게 전달한다. 심방은 제주도 무속 전통을 지속하는 종합 예술가들이기도 하다. 본풀이를 비롯한 여러 유형의 무가를 익혀서 부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굿하는 내내 춤추며 노래한다. 게다가 심방들은 누구나 무악기를 연주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제주도 굿에는 악사가 따로 없는 탓에 심방이 곧 악사이다. 심방은 노래, 무용, 연주, 무구 제작 등을 모두 감당하는 예인(藝人)의 면모를 갖추었다.

### [멩두]

멩두는 심방이 모시는 무업의 조상이자 굿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무구이다. 제주도 심방이라면 누구나 멩두를 모신다. 멩두는 신칼, 산판, 요령을 말한다. 세 가지 종류이니 ‘삼멩두’ 또는 ‘일월삼멩두’ 라고도 한다. 멩두는 심방 집의 당주에 모시다가 굿판에서는 공깃상에 놓는다.

신칼은 낫쇠로 만든 ‘신칼’ 과 백지를 가늘고 길게 여러 조각으로 잘라 달아맨 ‘신칼치메’ 로 이루어져 있다. 2개가 한 쌍이다. 신칼은 점구이면서 심방이 춤을 출 때도 사용한다. ‘시왕대번지’ 라고 부른다.



<사진 4> 신칼

산판은 천문, 상잔, 산대를 모두 일러 부르는 명칭이다. 모두 낫쇠로 만든다. 천문은 엽전 모양으로 생긴 것이다. 천지일월(天地日月) 또는 천지문(天地門) 등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상잔은 술잔 모양이다. 천문과 상잔은 각각 2개가 한 쌍으로 점구이다. 산대는 작은 접시 모양으로 천문과 상잔을 담아 두는 일종의 그릇이다.



<사진 5> 산판

요령은 심방이 손에 들고 흔드는 종 모양의 무구이다. 요령에도 여러 갈래의 천을 길게 매달아 놓는다. 이를 ‘요령치메’ 라고 한다. 요령은 심방이 신을 청할 때 흔들며 경우에 따라 본풀이를 구연할 때도 사용한다. ‘천안낙훼금정옥술발’ 이라고 부른다.



<사진 6> 요령

멥두는 물질전승과 구비전승을 두루 갖추고 있는 무구이다. 초공본풀이는 멥두의 명칭, 제작, 전승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 멥두는 강력한 신화적 전거를 갖추고 있는 신성무구인 셈이다. 심방은 반드시 멥두를 지녀야 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멥두를 물려받거나 스스로 만들기도 한다. 심방이 멥두를 마련하는 양상에 따라 물린멥두, 즈작멥두, 봉근멥두, 제절멥두, 본향멥두라고 하여 다섯 유형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물린멥두는 기존에 다른 심방이 사용하던 멥두를 그대로 전승한 것이다. 즈작멥두는 말 그대로 자작(自作)하여 만든 멥두이다. 봉근멥두는 우연하게 습득한 멥두를 말한다. 제절멥두는 심방 묘소의 상석 앞 계절(階節)에 묻은



<사진 7> 멥두와 공깃상



<사진 8> 제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멥두

멥두를 이른다. 본향멥두는 한 마을의 본향당을 맡는 ‘메인심방’ 에게만 전승되는 멥두이다. 멥두의 유형 가운데는 전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물린멥두가 가장 이상적이고 보편적이다. 봉근멥두와 제절멥두 같은 유형에서는 신병과 큰 관련을 보인다. 본향멥두 유형은 특히 심방의 세습 입무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심방은 입무하기 위하여 멥두를 마련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멥두로 인하여 입무하기도 한다.

심방의 무업활동과 멥두의 전승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멥두를 전승하는 목적은 무업조상을 모시고 핵심무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심방의 자격을 갖추는 행위이기도 하다. 멥두를 전승하여 얻는 효과는 심방의 경제기반 마련과 멥두 내력에 따른 심방의 권위 확보이다. 이는 심방의 무업활동 기반을 다지는 행위이기도 하다. 멥두 전승과 관련한 의례로는 멥두의 제작과 멥두고사, 멥두의 좌정과 당주제, 멥두의 신성과 신굿, 멥두의 역사와 공시풀이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신굿은 멥두의 신성을 바탕으로 심방을 공인하는 절차이다. 신의 길을 바르게 하고 심방의 무업활동을 인증하기 때문이다. 공시풀이는 심방이 조상들을 대접하고 멥두를 전승한 내력을 밝히며 자신의 생애를 말하는 의례이다. 멥두는 제주도 심방과 무속을 해명하는 근본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심방들은 누구나 이런 멥두를 모시기 때문에 심방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 글은 제주신화학고 강의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참고문헌을 따로 밝히지 않음)



# 5강

- 생사를 가르는 서천꽃밭 이야기, 이공본풀이



# 생사를 가르는 서천꽃밭 이야기, 이공본풀이

강정식(제주학연구소 소장)

## 1.

<이공본풀이>는 서천꽃밭 주화(呪花) 관장신의 내력담이다. <이공본풀이>는 흔히 ‘꽃불휘’ 라고 한다. 꽃의 뿌리, 즉 서천꽃밭 주화의 근본에 대한 이야기이다. ‘꽃불휘’ 인 <이공본풀이>는 ‘신불휘’ 인 <초공본풀이>, ‘노불휘’ 인 <삼공본풀이>와 함께 제주도 무속의 핵심을 이루는 3대 불휘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중시된다.

<이공본풀이>는 서사무가의 전승과 관련하여 학계의 논쟁을 이끌어왔다.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전승 혹은 작품이 적지 않다. 서사무가로 평안도의 <신선세턴님청배>와 경남 김해의 <악양국왕자노래>가 있다. 또한 『월인석보(月印釋譜)』에는 <안락국태자경(安樂國太子經)>으로 실려 있다. 고소설로는 <안락국태자전(安樂國太子傳)>이 있다. 기림사 사찰연기설화로 <기림사사적(祇林寺事蹟)>이 있고, 불화(佛畵)로 <사라수탱(沙羅樹幀)>도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서사무가의 형성과 전승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이공본풀이>는 동계(同系) 서사물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내용은 동계 서사물과 견주어 볼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서천꽃밭에 대한 한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 2.

<이공본풀이>의 전체적인 맥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가난한 김정국, 부자인 임정국 대감이 자식이 없어 불공을 드려 각각 사라도령과 원강아미를 낳는다.

- (2) 사라도령과 원강아미는 장애를 딛고 혼인하고 원강아미는 곧 임신한다.
- (3) 사라도령이 서천꽃밭 꽃감관 살이를 떠나게 되자 함께 길을 나선다.
- (4) 도중에 원강아미가 힘에 부치자 자원하여 자현장자의 종으로 팔리고 사라도령과 이별한다.
- (5) 원강아미는 자현장자의 동침 요구를 거절하며 할락궁이를 낳아 홀로 키운다.
- (6) 원강아미와 할락궁이는 원강아미를 차지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아차린 자현장자로부터 심한 벌역을 당한다.
- (7) 할락궁이는 원강아미로부터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하고 탈출한다.
- (8) 할락궁이는 서천꽃밭에 이르러 부자 상봉, 친자 확인한다.
- (9) 할락궁이는 서천꽃밭의 주화(呪花)를 얻어다가 자현장자 일가를 멸족 시킨다.<sup>1)</sup>
- (10) 할락궁이는 죽은 어머니를 주화로 살려내고 둘은 각기 신으로 좌정한다.

이야기 전반의 주인공은 할락궁이이다. 서천꽃밭의 의미가 강조되다보니 주화 관장신 사라도령이 주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가난한 김정국, 부자인 임정국 대감이 자식이 없어 불공을 드려 각각 사라도령과 원강아미를 낳는다. 김정국은 가난해서 불공을 드릴 제물도 마련하지 못하는 신세였다. 임정국이 제물을 마련해주어서 비로소 불공을 드릴 수 있었다. 불공을 드린 결과 김정국은 아들을 얻고, 임정국은 딸을 얻었다. 임정국이 오히려 제물이 모자라 아들이 아닌 딸을 얻었다. 정성의 모자라서 딸을 얻게 된다고 하는 설정은 일반적인 것이지만 <이공본풀이>에서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졌다. 자식을 얻게 되자 둘은 구덕혼사를 하여 장래 사돈이 되기로 한다.

사라도령과 원강아미는 장애를 극복하고 혼인하고 원강아미는 곧 임신한다. 둘이 성장해서 혼인을 할 나이가 되자 혼사에 장애가 생긴다. 김정국 대감이 여전히 가난해서 임정국이 혼사를 꺼린 것이다. 이때 원강아미가 나서서 약속대로 하자고 주장하여 혼사가 이루어진다.

---

1) 서천꽃밭의 주화(呪花)는 다양하다. 생불꽃, 환생꽃, 멸망꽃을 비롯하여 웃음꽃, 싸움꽃 등이 있다. 환생꽃의 쓰임에 앞서 뼈 살리는 꽃, 살 살리는 꽃도 있다. 이 가운데 환생꽃은 본풀이에서나 쓰일 뿐이다. 제주도 무속에서는 기본적으로 환생관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사라도령은 서천꽃밭 꽃감관 벼슬을 떠나게 된다. 원강아미는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천꽃밭으로 떠나는 사라도령을 따라 나선다. 원강아미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까닭이 있다. 서천꽃밭은 인간 세상이 아니고, 따라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라도령과 원강아미는 결국 이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원강아미가 지쳐서 더 이상 따라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원강아미는 자원하여 자현장자에게 종으로 팔리는 길을 택한다. 사라도령도 어쩔 수 없이 원강아미와 눈물로 이별하고 길을 떠난다.

원강아미는 자현장자의 거둬진 요구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정절을 지키면서 아들 할락궁이를 낳아 키워낸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초현실적인 도움이 있어서 극복할 수 있었다.

할락궁이는 자현장자의 집을 탈출하여 아버지 사라도령을 찾아 나선다. 할락궁이가 다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원강아미는 동침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에 자현장자의 괴롭힘이 더욱 노골화된다. 이에 할락궁이가 탈출을 감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할락궁이가 탈출하자 자현장자는 노하여 원강아미를 죽이고 만다.

할락궁이는 자현장자가 풀어놓은 개의 추격을 따돌리고 서천꽃밭으로 간다. 그리고 여러 차례 물을 건너는 긴 노정을 거쳐 서천꽃밭에 이른다. 사라도령을 만나 부자 상봉하고 친자 확인을 거친다. 할락궁이는 사라도령을 통해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다.

할락궁이는 서천꽃밭 주화(呪花)를 가지고 자현장자 집으로 돌아가서 일가를 모아놓고 멸족 시킨다. 사람들에게 갖은 어려움을 불러주는 수레멜망 악심 꽃이 이렇게 해서 규범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할락궁이는 죽은 어머니를 주화로 살려내고 신으로 좌정한다. 어머니 원강아미는 서천꽃밭 유모어명으로, 할락궁이는 아이차사로 좌정한다. 할락궁이가 사라도령의 뒤를 이어 꽃감관이 되었다고도 한다.

### 3.

일반적으로 기자(祈子)하여 태어난 자식이 주인공이 된다. 그러나 본풀이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다. <이공본풀이>도 그러하다. 기자로 태어난 부모의 자식이 주인공과 같은 행적을 보인다.

원강아미는 여러 모로 적극적이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인을 성사시킨다. 임신 중임에도 사라도령을 따라 나선다. 스스로 자현장자의 종으로 팔린다. 온갖 괴롭힘을 이겨내면서 할락궁이를 키워낸다. 고구려 건국신화의 유휘 부인을 떠올리게 하는 면모이다.

사라도령이 임신중인 원강아미를 자현장자 집에 종으로 팔아두고 떠나면서 원강아미와 할락궁이의 고난이 시작된다. 아버지에 해당하는 존재가 임신만 시켜놓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은 우리 신화에서 흔히 보는 설정이다. 그 결과 남겨진 어머니와 아들이 갖은 고난을 겪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대개 아버지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되돌아가는 법이지만 <이공본풀이>에서는 서천꽃밭 주화 관장신의 직무를 수행하러 간 것으로 설정된 것이 다르다. 그런데 서천꽃밭도 하늘에 버금가는 세계여서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

원강아미와 할락궁이가 남겨진 곳이 자현장자라는 부잣집인 것이 특별하다. <천지왕본풀이>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자의 악행이 유별나게 그려지기 때문이다. 자현장자는 원강아미에게 동침을 요구하다가 실패하자 결국 죽이기에 이른다. 가난한 사람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부자의 악행을 드러내는 것은 제주도 본풀이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것은 앞서 김정국이 가난해서 불공을 드리는 데 있어서나 할락궁이를 혼인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할락궁이가 자라서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하고 추적을 따돌리고 먼 길을 여행한 끝에 부자상봉을 하는 대목도 우리 신화의 전통에서 보던 것이다. 주몽과 유리가 그러하다. 그다지 뛰어난 것이 없던 할락궁이가 부자 상봉을 통해서 얻은 주화로 특별한 힘을 얻은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영웅적인 면모가 아버지의 혈통에 따라 자연스럽게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갖은 고난 끝에 부자 상봉을 이루어 주화를 얻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설정은 주인공의 영웅적인 면모를 드러내기보다 주화의 힘을 드러내는 데

기여를 하는 셈이다.

서천꽃밭으로 가는 길을 물을 건너는 것으로 설정한 대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차사본풀이>에서 강림이 저승에서 이승으로 되돌아올 때 물에 뛰어드는 과정을 통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강림이 저승으로 갈 때는 이와 달리 평지를 걸어가다가 굴을 통과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니 한결 같지는 않은 셈이다.

할랑궁이가 서천꽃밭에 이른 대목에서 서천꽃밭의 의미가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다. 서천꽃밭은 아이들의 영혼이 거처하는 곳이다. 이들은 꽃밭에 물주는 일을 담당한다. 가난한 집에서 살던 아이는 여기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부잣집 출신 아이들은 문제가 없지만 가난한 집 출신 아이들은 바가지가 깨져서 서럽게 울기도 한다.

할랑궁이가 자현장자에게 철저한 복수를 하는 대목도 주목을 끈다. 제주도 본풀이에서 이처럼 철저한 복수를 감행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차사본풀이>에서 과양생이 각시에 대한 징치, <문전본풀이>에서 노닐저데귀일이딸에게 하는 징치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원강아미의 주검에 대한 묘사가 고리동반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데 쓰이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sup>1)</sup> 대나무, 동백나무 가지가 주검을 뚫고 나왔다는 데 근거해서 굿을 할 때 고리동반을 만들어 올린다. 이것은 <문전본풀이>에서 여산국 부인 주검이 있던 자리의 흙을 모아놓고 분노에 찬 일곱 아들이 쳐서 구멍을 낸 데서 시루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한편 서천꽃밭의 주화 관장신이 사라도령임에도 불구하고, <세경본풀이>에서는 달리 설정되기도 한다. 정수남을 죽인 탓에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가 남장을 하고 서천꽃밭으로 가서 자원사위가 된 뒤에 주화를 얻어다가 정수남을 되살려낸다. 이때 서천꽃밭을 관리하는 존재는 황세곤간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자청비가 서천꽃밭으로 갈 때는 말을 타고 갔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고민스럽다. 본풀이에 따라 저마다 필요에 따라 설정을 달리한 것이다. <이공본풀이>와 <세경본풀이>의 차이를 그대로 두고 제각기 필요한 설정을 한 셈이다. 이는 <세경본풀이>의

1) 고리동반은 굿떡의 일종이다. 방울떡과 병것떡으로 이루어진다. 병것떡을 방석처럼 두고 그 위에 방울떡을 두르고 쌓은 다음 댓가지로 엮고, 다시 너울지로 싼다. 이 떡은 굿의 절차에 따라 다양하게 쓰인다.

내용이 <지장본풀이>에도 쓰이고, 다시 이것들이 ‘새드림’ 사설에도 쓰이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풀이할 성질의 것이겠다.

#### 4.

<이공본풀이>는 서천꽃밭의 근원을 설명하는 신화이다. 서천꽃밭은 주화를 가꾸는 곳이다. 서천꽃밭은 생사를 아우르는 공간이다. 이곳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공간이다. 삼승할망은 이곳에서 생불꽃을 얻어다가 잉태를 시킨다. 그런가 하면 서천꽃밭은 어린 아이의 저승이기도 하다. 어린 아이의 영혼이 이곳에 거쳐하면서 주화에 물주는 일을 한다. 서천꽃밭은 이상세계가 아닌 셈이다.

<이공본풀이>를 통해 제주도 무속 사회에서는 서천꽃밭을 특별한 공간으로 재설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굿에 필요한 규범을 다각도로 마련하였다. <이공본풀이>의 근간이 되는 이야기를 통해 굿을 짜기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굿의 절차와 의미를 다시 <이공본풀이>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특히 <할망본풀이>와 불도맞이는 <이공본풀이>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루어졌다.

# 6강

삼공본풀이

- 내 복에 산다고 자각하고 스스로 좋은 '전상' 을 일구는 삶



# 삼공본풀이

## - 내 복에 산다고 자각하고 스스로 좋은 '전상' 을 일구는 삶

강소전(제주대학교 강사)

### 1. 전상의 근원, 삼공본풀이

강이영성이서불과 흥운소천궁에궁전궁납은 가난하여 서로 사는 마을로 얻어먹으러 가다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다. 둘이 남의 품팔이를 하면서 사는데 첫 딸이 태어났다. 부부가 너무 가난하니 동네에서 불쌍하다고 은그릇에 먹여 살려주어 '은장아기' 로 이름 지었다. 곧이어 둘째 딸이 태어나니 역시 동네 사람들이 놋그릇에 먹여 살려주어 '놋장아기' 로 이름 지었다. 셋째 딸도 태어나니 동네 사람들이 나무바가지에 먹여 살려주어 '가문장아기(감은장아기)' 로 이름 지었다.

딸 삼형제가 태어나 자라가니 부부는 점점 발복하여 천하 거부가 되었다. 삼형제가 열다섯이 넘은 어느 날 부부가 앉아서 심심하니 딸아기들과 누구 덕에 먹고 입고 잘 사느냐는 문답을 하였다. 은장아기와 놋장아기가 아버님과 어머님 덕이라고 말하자 부부는 흡족하게 여겼다. 그러나 가문장아기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덕도 있지만 자기 배꼽 밑에 있는 선의 덕으로 먹고 입고 산다고 대답하였다. 부모는 불효막심하다면서 가문장아기를 내쫓았다.

어머니는 부모의 정으로 가문장아기가 식은 밥이나 먹고 가게 하라고 은장아기와 놋장아기에게 말하였다. 하지만 은장아기와 놋장아기는 가문장아기에게 부모가 너를 때리러 온다며 거짓으로 전하였다. 가문장아기는 둘을 청지네와 용달버섯으로 각각 변하게 하였다. 부부는 딸들의 소식이 없자 무슨 일인가 하며 문 밖으로 나오다가 문 위 지방에 눈이 걸려 장님이 되어 버렸다. 그 뒤에는 재산을 탕진하여 거지로 나서는

신세가 되었다.

가문장아기는 집을 떠나 길을 가는 도중에 깊은 산으로 올라가다 해가지니 허름한 초막을 발견하고 하룻밤 머물기를 청하였다. 집주인 노부부가 아들 삼형제 때문에 방이 없다고 하자 가문장아기는 부엌이라도 좋다며 허락을 얻었다. 조금 있으니 큰마통이와 둘째 마통이가 마를 파서 집으로 돌아와 지나가는 여자를 집에 들였다면서 부모에게 욕을 하였다. 그러나 작은마통이는 이를 반가워하며 받아들였다. 가문장아기가 삼형제의 행동을 살펴보니 큰마통이와 둘째 마통이는 불효하고, 작은마통이는 효도하여 쓸 만한 사람이었다. 가문장아기는 작은마통이와 서로 언약을 하고 부부 사이를 맺었다.

다음날 아침 가문장아기는 작은마통이에게 마 파는 곳을 구경 가자고 하였다. 가서 보니 큰마통이가 파던 곳에는 똥만 있고, 둘째 마통이가 파던 곳에는 지네, 뱀 등이 가득하였다. 작은마통이가 파던 곳에는 금덩이와 은덩이가 나왔다. 금은을 거두어 파니 가문장아기와 작은마통이는 부자가 되었다.

하루는 가문장아기가 자신의 부모가 거지가 되었을 것이라며 부모를 찾기 위하여 거지잔치를 열었다. 거지잔치 백일 만에 어떤 거지 부부가 지팡이를 짚으면서 들어왔다. 가문장아기는 하인들에게 그 거지 부부를 가지 못하게 잡아두었다가 다른 거지들이 다 가버린 뒤에 안방으로 청해들이라고 하였다. 거지 부부를 안방으로 청하여 대접하자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가문장아기가 와서 거지 부부에게 옛말이나 말해보라고 청하였다. 거지 부부는 옛말 대신에 자신들이 살아온 말을 하였다. 가문장아기는 거지 부부에게 술을 드리며 자신이 가문장아기라고 말하였다. 거지 부부가 들었던 술잔을 털썩 놓았는데 다시 부부의 눈이 밝아져 개명천지가 되었다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강이영성이서불 : 가문장아기의 부. 가난한 거지였으나 혼인하여 딸들을 낳은 뒤로는 부자가 됨. 자만이 생겨 가문장아기를 내쫓은 뒤 눈이 멀고 집안이 몰락하여 다시 거지가 됨
- 흥운소천궁에궁전궁남 : 가문장아기의 모. 강이영성이서불과 같은 처지
- 은장아기 : 첫째 딸. 부모가 가문장아기를 내쫓는 데 일조함

- 늦장아기 : 둘째 딸. 부모가 가문장아기를 내쫓는 데 일조함
- 가문장아기 : 셋째 딸. 부모에게 자신의 덕(복)에 산다고 말하여 쫓겨났지만 죽은마통이와 혼인한 뒤에 부자가 됨. 거지잔치를 하여 눈이 먼 부모를 찾고 만나서 부모의 눈을 뜨게 함
- 큰마통이 : 가문장아기를 받아들이는 데 거부하고 불효함
- 셋마통이 : 가문장아기를 받아들이는 데 거부하고 불효함
- 죽은마통이 : 가문장아기를 받아들이고 효도함. 가문장아기와 혼인한 뒤 부자가 됨



<사진 1> 삼공본풀이(상잔점)



<사진 2> 삼공본풀이(상잔점)

## 2. 내 복에 산다고 자각하고 스스로 좋은 전상을 일구는 삶

### [전상]

삼공본풀이는 자기 복에 산다고 자각하고 스스로 좋은 ‘전상’을 일군 가문장아기의 내력담이다. 제주도 곳곳에서 말하는 전상은 현재는 아직 흔히 ‘전생’ (前生)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실상 이 전상의 개념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전상은 어떤 행위나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한다. 말하자면 술을 먹는 것도 전상이고 도둑질 하는 것도 전상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전상이며 심방일을 하는 것도 전상이라고 한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나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전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전상 중에서 ‘좋은 전상’은 맞아들이고 ‘나쁜 전상’은 풀려서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쁜장아기의 부모는 애초에 거지로 매우 가난하게 살았다. 살림이 어려워 아이들을 키우는 데도 이웃들의 도움을 받을 형편이었다. 하지만 부자가 된 뒤로는 가난하였던 지난날을 잊고 점점 자만한 모습을 보였다. 세 딸이 성장하자 급기야 아이들을 불러놓고는 누구의 덕에 사느냐는 질문을 하는 데 이르렀다. 집안의 발복을 오로지 자신들의 업적으로 여겼다.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을 한 셋째 딸을 내쫓은 뒤에는 눈이 멀고 다시 가난해지는 나락으로 빠져 버렸다.

은장아기와 늦장아기, 큰마통이와 둘째 마통이의 모습은 비슷하다. 은장아기와 늦장아기는 부모가 만든 질서에 그대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셋째 가쁜장아기가 쫓겨날 때에도 도움은 커녕 거짓된 행동을 하여 결국 인간의 모습조차 잃어버리고 말았다. 큰마통이와 둘째 마통이도 자신들의 집을 찾아온 가쁜장아기를 다짜고짜 배척한다. 음식을 두고서도 자신들이 좋은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을 부렸고 늙은 부모를 하대하였다. 새로운 경험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익숙한 것이 아니라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 결과 그들이 얻은 것은 마가 아니라 똥, 지네, 뱀 등이었다.

가쁜장아기는 누구 덕에 사느냐는 부모의 물음에 부모의 덕이면서도 자신의 복으로 산다고 당당히 말하였다. 자신의 존재와 삶을 자각하는 놀라운 행동을 보여준다. 스스로 삶과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다. 집을 떠나 마통이네 집에 도착해서는 여러 상황을 지혜롭게 헤아려 셋째 마통이를 선택한다. 물론 셋째 마통이는 위의 두 형에 견주면 부모를 보살피고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배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큰마통이와 둘째 마통이가 은장아기와 늦장아기의 모습이라면 셋째 마통이는 가쁜장아기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 결과 가쁜장아기와 셋째 마통이는 마 대신에 금은을 얻고 부자로 잘 살게 되었다. 가쁜장아기는 나중에는 장님 거지가 된 부모의 삶에도 변환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간다.

삼공본풀이에 나타나는 가쁜장아기의 생각과 행동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가쁜장아기의 생각과 행동은 분명 그의 부모, 두 자매와는 매우 달랐다.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자 하였다. 지혜롭고 통찰하는 안목이 돋보인다. 삼공본풀이에서 가쁜장아기는 스스로 ‘좋은 전상’을 일구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이 결국

스스로 복을 불러오는 데 이른다. 곧 삼공본풀이에서 ‘내 복에 산다’는 것은 그에 맞는 ‘좋은 전상’을 행하였을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운명을 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타고난 전상’만큼이나 ‘좋은 전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운다. 그리고 보면 삼공본풀이는 우리들에게 삶의 이치를 가르쳐준다. 본풀이의 구비철학적 면모를 매우 잘 드러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놀레]

삼공본풀이는 심방이 장구를 치며 구연하는데 후반부에 이르면 ‘놀레’라고 하는 방법으로 푼다. 이때 심방은 장구를 치고, 소미 한 명이 옆에서 북을 함께 연주한다. 놀레에서는 가문장아기와 부모가 만나 서로 살아온 내력을 구슬프게 노래한다. 삼공본풀이의 내용이 놀레에서 축약되어 거듭 다루어지는 셈이다. 가문장아기는 부모를 찾기 위하여 거지잔치를 열었고 백일 만에 장님이 된 부모와 상봉하며 부모의 눈은 다시 밝아진다. 부모의 개안(開眼)은 심방이 놀레 뒤에 술을 따라 놓은 상잔으로 점을 쳐서 확인한다.

<부모>		<가문장아기>	
옛날 옛적	간은 옷상실	아바~지	어머님 눈에 난
간이영성이곡	우리 할망	올레 바꿨디	나와시난에
알상~실은	홍문수천	큰 성(兄) 오란	아버지가
구에궁전	살앗수다	몽뎡이 들런	느 두드리레
우인녁케	승년(凶年) 들영	오람젠 허~난	느려산 게
아랫녁케	풍년 뒤엇저	청지~냉이	흑지냉이 뒤고
소문 들언	얻어 먹으레	셋 성~은	어머님이
아랫녁케	내려가단	느 딱리레	오람젠 일러부난
아랫녁케	홍문수천	걸럼 우이서	용달버섯 뒤언
구에궁전	우인녁케	이내 몸은	걸~어
올라가단	길로변(-路邊)에서	나사 앓언	질을 일러근
만나그~네	부베간(夫婦間)을	걸단 걸단	바려보난
삼은 것이	은장아기	큰마통이	마 파는 디
물?랑에~서	탄생허고	넘어사고	셋마통이
흑꿈 나사난	늦장아기	마 파는 디	넘어사고
비주리초~막	탄생허고	죽은마통이	마 파는 디 가난
가문장아기	숫아나난	[불청] 아래서	굴아주난
이 아기	탄생헌 게	비주리초~막	할망신디 오란

남전복답	너른 전지여	주인 못안	그디~서
고대광실	들 높은 집 난	족은마퉁이영	부베간 인연 뉘연
거~부제로	잘 살아지난	살단 보~난	돈도 나오고
흐를날은	큰뜰아기	금도 나오고	은도 나난
은장아~기	불러다근	부모님네	훗젠 허~난
누게 덕(德)에	먹고 입고	걸인잔치를	열럼수다
행공발신을	허염느냐	아버지야	나 술 혼 잔
하나님도	덕입네~다	받음~서	어머님아
지에님도	덕입네다	나 술 혼 잔	받음~서
아버지 어머니	덕입네덴	아버지 어머니	[흐느낀다.] 손을 심영~
일르~고	셋뜰아기	비새 ㄱ찌	올어가명
늦장아기도	그와 ㄱ찌		
말을 허고	족은~뜰		
가문장아~기	하나님 지하님		
아버지 어머니	덕이우다		
마는 허뉘	나 베토롱 알		
선그몯의	덕이우덴 허난		
딱리젠 허난	다울리난		
집 나간 게	은장아기 ㄱ라		
느네 아시 가근	돌앙 오렌		
보낸 것~이	아니 오고		
늦장아기	보내~난		
아니 오란	우리덜은		
뜰덜 훗~젠	베궂터레		
바당터레	나오젠 현 게		
문지 문대방에	입쟁이에		
눈덜 박안			

『이용옥 심방 본풀이』(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에서 일부 인용

### [전상놀이]

삼공본풀이는 제주의 ‘굿놀이’ 가운데 하나인 ‘전상놀이’와 밀접하다. 전상놀이는 연극적인 의례이다. 삼공본풀이의 내용에서 거지잔치를 하는 부분이 전상놀이에서 연극적으로 행해진다. 본풀이의 내용이 굿판의 단골들 앞에서 실감나게 펼쳐지는 셈이다. 전상놀이는 장님 거지부부를 통해 전상을 연극적으로 보여주고 굿판에 있는 모든 이들의 전상을 풀어

내는 것이다. 현재 전상놀이는 자연적인 곳판에서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곳과 같은 큰곳에서 아주 드물게 벌어지는 데 그치는 형편이다.



<사진 3> 전상놀이(김수남 사진)



<사진 4> 전상놀이(김수남 사진)

전상놀이를 할 때 ‘전상 탈’ 이라는 종이 가면을 사용한다. 즉 소미 2인이 이 종이로 만든 탈을 쓰고 가문장아기의 장님 부모 역할을 한다. 탈을 쓴 소미는 이제 인간이 아니라 신의 형상을 한 것이다. 전상 탈은 그 형태가 매우 단순하다. 네모난 흰 한지에 눈, 코, 입만 형상화 되게 간단히 오린 것이다. 한마디로 얼굴 모양을 나타내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사진 5> 전상 탈

(이 글은 제주신화학교 강의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참고문헌을 따로 밝히지 않음)